

경제 프리즘

갈비탕·치킨 줄인상...외식물가 너무 올랐다

저축은행 미보호 예금 6조5천억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7,551명이었다.

이들은 총 10조3,512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했다.

이들이 맡긴 돈 가운데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 받는 나머지(순초과예금)만 계산하면 6조4,737억원이 나왔다. 이는 전분기 말보다 7.9%(4,723억원)·1년 전인 2017년 3분기보다 28.8%(1조4,486억원) 각각 뛰 규모다. 작년 들어서 3분기까지 증가 폭은 1조599억원에 달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자 모집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 과제에 도입돼 2만명 모집에 10만명 이상 지원했다. 올해 모집 규모는 작년의 4배인 8만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을 지원해 적립금 40만원을 휴가 시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달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적립금 조성을 마치고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를 사용하는 일정이다.

평균 8%이상 상승...햄버거도 부담스러워

소비자물가지수 광주 0.5%·전남 0.9% ↑

갈비탕과 치킨 등 대중적인 외식 먹거리들의 가격이 줄줄이 대폭 오르고 있다.

특히 이들 먹거리들은 최근 가격 대비 상승 폭이 큰데다 소비 빈도도 높아 서민 가계경제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을 분석해보면 지난 1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3.87로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03.78로 전월대비 0.3% 하락했고, 전년동월대비 0.0% 보합을 보였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식료품·비주류 음료(2.5%) 가장 크게 올랐다. 음식·숙박(2.1%)·가정용품(1.9%) 등과 비교해도 높은 상승 폭이다.

외식물가 중에서도 갈비탕이 전년 대비 10.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대표적 외식 메뉴인 치킨(6.4%)·해장국(6.4%), 맥주(4.1%) 순으로 상승했다.

전남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 1월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35로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04.06으로 전월대비 0.4%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했다.

특히 식료품·비주류 음료가 전년 대비 3.4% 큰 오름세를 보였다. 이어 음식·숙박(2.8%)·교육(2.5%) 순으로 상승하며 전체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식 메뉴 중에서는 전년 대비 짬뽕(13.2%), 칼국수(8.8%), 갈비탕

(7.8%) 순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이처럼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외식업체마저 줄줄이 가격 인상을 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대형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는 오는 12일부터 버거 6종과 아침 메뉴 5종 등 총 23개 메뉴 가격을 인상한다. 인상 대상 품목에는 '햄버거', '베یکن 토마토 디럭스', '크리스피 오리엔탈 치킨버거' 등이 포함됐다. 인상 폭은 최대 200원으로, 평균 인상률은 2.41%다.

또 C.J.제일제당은 오는 21일부터 즉석밥 햇반 210g 제품 가격을 1,480원에서 1,6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햇반

컵반 스펀마요덮밥은 2,980원에서 3,180원으로 평균 6.8% 오른다

이 밖에 어묵과 맛살도 수산물 가격 인상을 반영해 각각 평균 7.6%, 6.8%씩 올리기로 했다. 액젓과 장류, 다시다 등도 인상 대열에 포함됐다.

이처럼 외식뿐 아니라 식품업체까지 가격 인상에 나서며 설 이후에도 외식·생활물가 인상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김서현씨(23)는 "자취를 하다 보면 외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면 밥 먹기 겁이 난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앞으로 얼마나 더 올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수영 기자



7일 기아자동차는 K시리즈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전자행태기반 보험'과 연계한 'K시리즈 2019 안전운전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아차 제공

광주은행-사랑방미디어 금융콘텐츠 제휴

모바일 웹뱅킹 접속 용이 일자리 등 정보 제공도

광주은행은 지역 광고플랫폼 사랑방미디어와 금융 콘텐츠를 제휴해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사랑방미디어는 일일 10만명, 월 250만 명이 방문하는 플랫폼으로 뉴스·지역 소식·부동산 정보·일자리·여행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중 아파트 매매의 경우 드론촬영영상·3D평면도·시세·학군·거주민리뷰 등 최상의 콘텐츠를 장착, 이용고객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 모바일웹뱅킹을 새롭게 구축한 광주은행은 사랑방미디어 홈페이지에 금융 콘텐츠를 제휴하고 부동산 콘텐츠에 주택담보대출 상담 신청·광주은행 모바일 신용대출, 각종 예·적금 상품 배너를 삽입해 사랑방 이용 고객이 광주은행 모바일웹뱅킹 접속을 통해 쉽고 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민 기자

이용섭 정례회서 작심 비판

▶1면에서 계속

이 시장은 "경차 생산이 포화상태라고 주장하지만, 핵심은 가격과 품질이다"며 "합작법인이 생산할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은 임금이 적정화돼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새로운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작은 경차 SUV로 출발하지만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형 친환경차 등 파생 모델 개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날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의 적극적인 소통, 격무·기피부서 결원 충원과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등 근무 환경 조성, 각종 재해와 전염성 바이러스 대비 예방 활동 강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2020년 국비 예산 확보 등 당면 현안 자질 없는 추진 등을 당부했다.

기아차 안전운전 문화 정착 앞장

'K시리즈 프로젝트' 추진...고객 안전 프로모션

기아차가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7일 기아자동차는 오는 3월 31일까지 K시리즈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운전자행태기반 보험'과 연계한 프로모션 'K시리즈 2019 안전운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과 연계된 '운전자 행태 기반 보험'은 T맵과 DB손해보험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보험은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점수를 매기고

기준 점수가 넘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 해주는 상품이다.

이에 기아차는 지점·대리점을 방문해 운전자행태기반 보험 가입 등이 포함된 안전운전 약정서를 작성하고, 안전운전을 다짐하는 K시리즈 구매 고객에게 '안전운전 기원' 1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운전점수는 T맵 어플리케이션 내 '안전습관' 서비스를 통해 측정되며 과속, 급가속, 급감속 등의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치화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단순한 프로모션을 넘어 한 차원 높은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영 기자

오천 경매

-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1억원 이상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비 등 1200만원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H. 010-3605-5000

지역 전기 전기료에 등골 땀나

▶1면에서 계속

반면 '농업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저렴한 요금제를 운용되고 있어 중소기업 경영계는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경부하요금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구체적인 요금제 방안으로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심야의 산 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김경만 중소기업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부문의 20% 상당으로,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도 한국전력의 판매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상승 등 중소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이라도 줄여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분야별 전기요금 부담률을 살펴보면 금속가공 7.60%·섬유 7.13%·비금속광물 4.73% 등 3개 업종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조사돼 전기요금이 산업경쟁력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를 선도하는 종합신문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강진군 공고 제2019-121호

강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강진군수

1. 개최목적 : 강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2. 일 시 : 2019년 2월 21일(목), 14:00 ~ 16:00
3. 장 소 : 강진군 도서관 3층 어울림터 (강진군 강진읍 남문길 10)
4. 주요내용
 - 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설명
 - 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등
 - 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사업계획 등
 - 라. 도시재생 관계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 의견수렴
5. 의견제출
 -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공청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및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참석을 못하는 주민 등은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 의견을 우편,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장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문길 111, 강진군청 건설과 농업농민개발팀
 - Tel. : 061-430-3412 이메일 : yangds01@korea.kr
 - * 의견서 서식 : 공청회 장소 배치 및 강진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건설과 (☎061-430-3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경조화환 7만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명 박백성 302-0316-649511

11월은 인구의 날

도와주는 아바에서
함께하는 아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의회/공주전남지회
가 함께 합니다

임야 단독섬

- 바로 삽니다!
- 전남/북지역/지분 환영
- 1억원 이하
- 당일 매입 가능

문의. 010-6834-7400